

朝鮮時代 嶺南地方 甕器에 관한 研究

: 제작기법과 관련된 특징을 중심으로

배 보 니*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 가마유적 현황 |
| III. 기종과 제작기법 | IV. 맺음말 |

국문요약

옹기는 식품 저장용기로서 근대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도자기의 하나이다. 그러나 옹기는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고고학 분야에서의 옹기 연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옹기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최근 옹기 전용 가마를 발굴한 예가 있어 이들을 통해 조선시대 옹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옹기의 기종과 제작수법을 통한 특징을 검토하고 옹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종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뚜배기, 술 등이 출토되고 있는데 유적별 출토 기종은 어떠한지, 기종별 변천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15C~16C) 옹기는 유색이 대체로 녹갈색 계통이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로서 회갈색 또는 적갈색을 띤다. 기형에 비해 기벽이 얇은 편이다. 기종은 동이, 호, 단지, 병, 뚜껑 등이 있고 모두 평저이다. 항아리와 동이의 구연부 형태는 'T'자형을 이루는 것이 많다. 단지는 둥근 구연단이 도톰하게 외반하거나 각이 완만한 역삼각형 구연이 있다. 병 구연은 대체로 나팔상으로 외반하나 경부 상단이 반구병의 형태인 것과 구연단이 둥근 형태, 구연이 나팔상

* 경남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원

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이 편평한 것이 있다. 뚜껑은 구경이 넓고 상면이 편평하며, 기신이 낮은 형태로 시유가 되어 있지 않다. 포개구이용 받침으로 주로 조개를 사용하였으며, 내면에 동심원상의 도개흔이 관찰된다.

조선 중기(17C~18C 중반) 옹기의 태토는 전기 옹기보다 입자가 거칠고 굵은 석립의 함량이 높으며, 유색은 전기의 녹갈색에 비해 어두운 암갈색 또는 갈색 계통이며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었다.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이외에 뚜껑배기와 술이 보인다. 구연은 두께가 두꺼우며 말아 접은 구연이 사다리꼴을 이루거나 술에서는 구연을 길게 이중으로 말아 붙여 내만하는 형태가 보인다. 외면에서 돌대에 압인하기도 하며, 받침은 하동 고이리 단계까지는 주로 조개껍질을 이용하였으나 칠곡 가천동에서는 조개껍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가천동 요지에서 술을 비롯하여 뚜껑배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는 저장·운반용의 중·대형 기종뿐만 아니라 조리용이나 식기류의 소형 기종도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18C 중반~19C) 옹기는 태토가 전기 및 중기에 비해 입자가 거칠고 굵은 사립의 함량이 높다. 유약은 두께가 두꺼워지고 고르게 시유된 편이다. 구연의 형태도 다양해져 역자 형태뿐만 아니라 밖으로 말아 접은 구연단이 바깥으로 처지면서 넓게 형성된 것도 있다. 뚜껑은 상면에 직경 1cm 미만의 구멍이 뚫려 있다. 기종은 중기에 비해 술과 뚜껑배기 등의 조리용기나 식기류를 비롯한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게 제작되기 시작하여 19C에는 옹기가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고고학 자료가 더욱 증가되면 옹기 가마에 관한 연구나 자기와 옹기의 수요·공급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검토와 지역색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옹기의 시기별 변화양상을 재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옹기, 저장용기, 조리용기, 식기, 기종, 유색, 태토, 받침, 구연

I. 머리말

옹기의 사전적 의미는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운 ‘질그릇’과 잿물을 입혀서 구운 ‘오지그릇’을 통칭하는 말인데, 근래에 통용되는 옹기의 의미인 잿물을 입힌 ‘오지그릇’으로써의 옹기의 시원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¹⁾ 『世宗實錄地理志』²⁾에 ‘磁器所’와 ‘陶器所’가 명확히 구분되어 그 현황을 밝히고 있고, 경상도 초계군 도기소에서 ‘黃甕’을 구웠다는 기록이 있다.³⁾ 또한, 『經國大典』⁴⁾ 京工匠條에 甕匠 104명에 대한 기록과 外工匠條에 黃甕匠에 대한 기록 등이 있어 잿물을 바른 옹기의 사용시기를 조선 초인 15C 경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문헌 이외에 유적이거나 유물에 의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옹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단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자사는 자기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자기가 우리나라 도자의 전반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그 동안 옹기에 관해서는 현대 도예가를 제외한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자 관련서적에서도 많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고고학 분야에서의 옹기 연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발굴유적에서는 출토량에 비해 보고서에 소개되는 분량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그 동안 자료의 축적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옹기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전용 옹기 가마만을 발굴 조사한 예가 몇 소개되어 이들을 통해 조선시대 옹기의 변화 양상과 제작기법을 통한 옹기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옹기’의 개념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다룰 옹기의 개념을 위에서 언급한 잿물(오것물)을 입혀서 구워낸 ‘오지그릇’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2) 1454년(단종2년)에 완성된 『世宗莊憲大王實錄』 권148~155에 실려 있는 전국 지리지로서 8년간(1424~1434년) 전국 각지에 산재한 磁器所와 陶器所, 그리고 그 제품의 품질까지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자기소는 136개소, 도기소는 185개소가 기록되어 있으나 아직 자기소와 도기소의 명확한 성격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3) 『世宗實錄地理志』 第150卷 慶尙道 尙州牧 草溪郡 “...陶器所一在郡東吾土要里專陶黃甕中品。”

4) 조선시대의 근본 법전으로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經濟六典』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1484년(성종15년)에 완성한 『乙巳大典』이 지금의 『經國大典』이다.

윤국일 옮김, 1998,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II. 가마유적 현황

현재까지 영남지방에서 발굴조사된 옹기가마 유적은 청도 순지리, 하동 백련리⁵⁾, 사천 우천리, 하동 고이리, 칠곡 가천동, 울산 천전리, 울산 방리, 사천 류천리, 부산 정관 유적 등이다. 이들 유적을 각 보고서의 보고시기를 기준으로 조선 전·중·후기로 구분하여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옹기 가마 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조사기관	시 기	비고
1	청도 순지리 유적	경남대학교박물관(1994)	15~16C	前期
2	하동 백련리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16C중반	
3	사천 우천리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보고서 작업중)	16C후반(~17C초)	
4	하동 고이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1990)	17~18C	中期
5	칠곡 가천동 유적	경북대학교박물관(1991)	17C중·후반~18C	
6	울산 천전리 유적(I)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4)	18~19C	後期
7	울산 방리 유적(III)	한국문화재보호재단(보고서 미간)	18~19C	
8	사천 류천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1996)	18~19C (제민창지 : 1763~1890)	
9	부산 정관 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보고서 미간)	19~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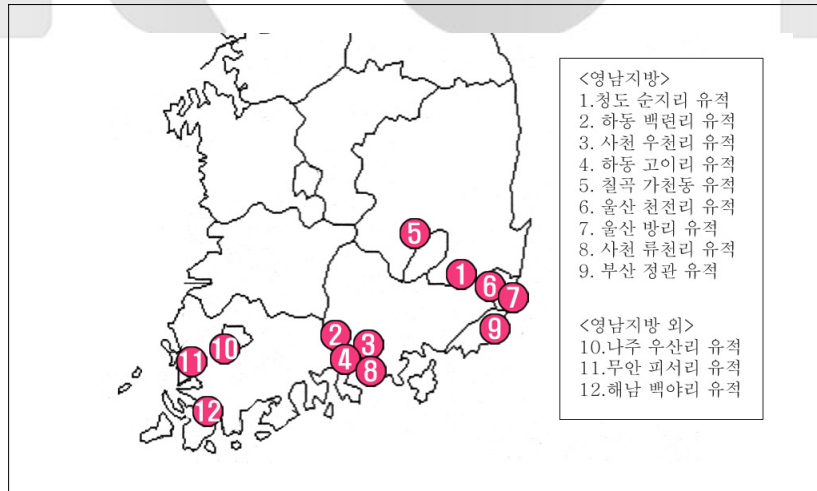


그림 1. 옹기가마 분포 현황도

⁵⁾ 하동 백련리는 옹기 전용 가마는 아니다. 백자 전용 가마이나 백자를 통해 출토 옹기류의 연대 추정이 가능하고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Ⅲ. 기종과 제작기법

옹기의 기종과 제작기법을 통한 특징을 검토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옹기 가마 유적을 각 보고서의 보고시기를 기준으로 15~16C에 해당하는 유적을 ‘전기’, 17~18C 중반에 해당하는 유적을 ‘중기’, 18C 중반~19C에 해당하는 유적을 ‘후기’로 설정하여 각각의 특징을 크게 전·중·후기로 대별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기종

조선시대의 가마유적에서 출토되는 옹기는 대부분이 파편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완형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옹기의 기종을 파악하는데 있어 구연부와 경부의 형태만으로 기종을 나누어 분류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최근까지 옹기는 대부분이 속칭으로 통용되어 왔을 뿐 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용 계층이 일반 민중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종다양한 명칭이나 용도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 명칭이나 용도를 하나로 통일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연히 지역에 따라 지방 고유의 명칭으로 불러 왔다. 동일한 기종·기형의 것도 시대나 지역에 따라 용도와 명칭이 다른 예가 많아 일률적인 적용은 곤란한 실정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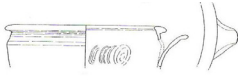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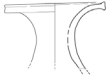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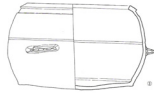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 전·중기 가마유적에서 보이는 옹기는 근대의 옹기에 비해 기종이 주로 운반·저장용 용기로 매우 한정적이며 옹기의 종류나 크기 또한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종을 중심으로 각 기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여 유적별 출토 기종은 어떻게 다른지, 기종별로 변천과정은 어떠한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⁷⁾

⁶⁾ 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칠곡 가천동 옹기 요지』, 『대구-춘천 간 고속도로 예정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53쪽; 이동희, 1985, 『한국 옹기의 지역별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요업디자인전공 석사학위논문.

⁷⁾ 경남대학교 박물관, 1994,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 이제일, 1992, 『한국 도자기 명칭에 관한 고찰-기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도예학과 도예전공 석사학위논문.

표 2. 기종 분류 기준

기종	형태	도면
항아리	동체가 구형에 가까우며, 목이 급격하게 좁아져 구경이 동부 최대경보다 작은 기형이다. ⁸⁾	
주구항아리	항아리의 기형이나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며, 동체 상단에 注口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동이	넓은 구연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체부는 직립에 가깝거나 내만하고 배는 부르지 않은 형태로 동부 중앙에 2개의 손잡이가 붙어있는 것이 많은 편이다. ⁹⁾	
귀때동이	기본적인 형태는 동이와 비슷하나 구연 바로 아래에 귀때 ¹⁰⁾ 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단지	항아리와 같이 동체에 비해 목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하나 그 정도가 항아리보다 약하며, 높이가 약 25cm 이하의 작은 형태이다. ¹¹⁾	
병	나팔처럼 벌어지는 구연부와 좁은 경부를 가지고, 어깨에서 벌어져 동부에 최대경을 가지는 형태이다. ¹²⁾	
뚝배기	저경에 비해 구경이 넓고 동체는 내만하며 구연은 뚝뚝한 형태이다. ¹³⁾	
술	구경과 저경의 크기가 비슷하고, 동체는 약간 양감이 있으며, 대개 동체 중상단에 돌대형 파수 또는 점토대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¹⁴⁾	
뚜껑	뚜껑은 형태가 다양하고 일정한 형식을 찾을 수 없는데, 덮개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뚜껑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8) 항아리의 주기능은 저장용기로 볼 수 있다. 형태와 크기와 세부 용도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大, 中, 小로만 구분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9) 동이는 넓은 구연부를 가지고 배는 부르지 않은 형태로 주로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흔히 물을 길어 나르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항아리가 저장을 주기능으로 하는데 비해 운반용기로서 기능이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이는 완형이 드물어 손잡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연부의 형태와 구연과 동체와의 연결 각도 등을 통하여 동이로 구분한다. 동이는 항아리와 함께 생활유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기종 중 하나로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에 걸쳐 출토되고 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혜선,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30쪽; 이종창, 1996, 『옹기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셀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산업대학원 상업공예과 도자기공예전공, 28쪽.)

1) 전기(15~16C)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가마유적은 청도 순지리 유적, 하동 백련리 유적, 사천 우천리 유적 등이 있다.

표 3. 유적별 출토 기종 현황¹⁵⁾

유적 \ 기종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합 계
청도 순지리	12	18	16	8	26	80
하동 백련리	5	15	0	0	0	20
사천 우천리	184	106	99	10	1	400
합 계	201	139	115	18	27	500

기종은 항아리와 동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지와 병, 뚜껑이 있다.

항아리는 경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골고루 출토되고 있으며, 경부가 긴 기형일수록 동체 외반도가 큰 편이다. 구연 형태는 대부분 'T'자형이다.

순지리와 백련리에서는 항아리에 비해 동이의 출토량이 많은 편인데 동이는 대체로 구경이 동부최대경보다 큰 기형으로 동체부가 구경에 비해 살짝 외반하는 형태와 동체부가 거의 직립하는 형태, 구연에서 동체부가 내만하는 형태의

10) (액체를 따르는데 편리하게) 그릇 한쪽에 붙여 만든 새의 부리처럼 내민 부분.
 11) 원광대학교박물관, 1997,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제10회 특별전시기획도록, 93쪽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80쪽 ; 정명호, 1997, 『한국 옹기의 지역적 특성과 그릇 명칭에 관한 조사연구』, 167~168쪽, 176쪽.
 12) 병은 기본적으로 술이나 물을 저장하거나 운반할 때 사용한 것으로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한혜선,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32쪽).
 13) 뚜배기는 밥이나 국을 담아먹는 식기류에 대한 총칭으로 투가리, 똑사리, 툇바리라고도 한다. 독수리, 툇배기, 툇수리 등 지방에 따라 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퉁주'로 불리는 것도 형태상으로는 유사한 것이며, 불에 강한 태도를 사용하여 냄비처럼 직접 불에 올려 음식을 끓일 수 있는 것은 주로 '뚜배기'로 부르며, 식품을 담는 대접이나 바가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주로 '퉁주'로 부른다. 한 번 뜨거워지면 쉽게 식지 않는 장점이 있어 겨울철에 따끈한 음식을 먹을 때 좋다(윤숙자·박록담 편저, 1999, 『우리의 부엌살림』, 삶과 꿈, 45쪽, 65쪽) ; 정명호, 앞의 책, 185~186쪽.
 14) 부뚜막에 걸어놓고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는데 쓰이는 주방용기의 일종으로, 자유로이 옮겨 걸고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노구술'으로도 부른다 ; 송재선, 2004, 『우리나라 옹기』, 동문선, 304쪽.
 15) 각 유적 출토유물은 총 출토유물 수량이 아닌 필자의 기종 분류 기준에 의해 기종 분류가 가능한 유물현황을 제시하였다.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동이의 구연형태도 ‘T’자를 이루는 것이 가장 많이 보이고,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이 둥근 형태나 각이 지듯 역ㄱ자로 외반되는 것도 있다. 동이류는 파수 또는 귀때가 붙어 운반용으로 주로 이용되며 횡으로 帶狀의 파수가 부착된 것과 귀때가 붙은 동이 구연부편이 있다.

단지는 항아리에 비해 소형 기종으로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경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아리는 구경과 동체 잔존부의 외반도로 보아 높이가 25cm 이상은 넘지 않는 형태이며, 항아리와 구분되는 특징은 규격을 비롯하여 구연의 형태이다. 항아리는 구연형태가 ‘T’자형을 이루는데 비해 단지에서는 ‘T’자형은 소수이고 구연단이 외반하며 둥글게 말아 접었으나 경부에서 완만하게 외반하거나 완만한 역삼각형을 이루며 구연단이 약간 솟거나 움푹 들어간 형태가 있다.

병은 3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반구병의 형태와 유사하며 구연이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와 경부에서 구연이 나팔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이 둥글게 마무리되는 형태, 구연이 나팔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이 편평하거나 홈이 있는 형태가 있다. 이 중 반구병처럼 경부 상단에 단이 지는 형태는 청도 순지리 유적에서만 보이고 있어 15~16C초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순지리 유적에서는 시유되지 않은 뚜껑의 출토량이 많은데, 이는 항아리와 세트틀 이루어 항아리가 저장용기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지리에 나타나는 뚜껑은 구경이 넓고, 상면이 편평하며, 기신이 낮은 형태로 모두 시유가 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이는 뚜껑이 항아리의 덮개 용도로 이용되었으나 소성시에는 가마 내부에서 포개구이를 할 때 제작 부속 도구 공뚜껑¹⁶⁾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순지리에서는 윗면이 편평하고 중앙에 꼭지가 붙은 추정구경 14cm 정도의 소형의 것이 보이는데 이는 소형 단지류의 뚜껑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에만 보이는 형태이다.¹⁷⁾

청도 순지리와 우천리에서는 시루 저부편도 출토되었다.

16) ‘곰뚜껑’이라고도 한다. 가마 안에 맞붙여 재여지는 옹기의 구연과 구연 사이에 한 장씩 놓이는 것으로 옹기의 크기에 따라 공뚜껑의 크기도 달라진다. 공뚜껑 가장자리에는 보통 3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공기의 유통으로 기물 내부가 잘 익게 한다. 공뚜껑은 구연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 소성시 흘러 내리는 잿물을 받아내며 입 부분이 휘는 것을 방지한다; 원광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09~110쪽.

17) 중앙에 꼭지가 붙은 소형 뚜껑은 함안 칠원읍성 출토유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칠원읍성 출토유물도 16세기경으로 편년 가능한 옹기가 출토된 바 있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함안 칠원면 도로개설구간 내 칠원읍성』).

조선 전기 옹기는 대체로 성형방법이 유사하여 비슷한 양상을 하고 있다. 각 유적별로 기종은 유사하나 기종별 출토량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동 백련리와 사천 우천리 유적에서는 뚜껑류가 보이지 않은 점이 특이하며, 하동 백련리 옹기는 유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더 옅은 녹색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유적별로 기종의 차이 또는 유색의 차이는 지역차에 따른 태토와 유약 성분에 있어서의 미세한 차이일 뿐 시기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옹기는 그 제작방법이 유사¹⁸⁾한 탓에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시기차를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기(17~18C중반)

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하동 고이리 유적, 칠곡 가천동 유적이 있다. 기종으로는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과 술, 똑배기가 있다.

표 4. 유적별 출토 기종 현황

유적 \ 기종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술	똑배기	합계
하동 고이리	2	1	1	·	12	4	·	20
칠곡 가천동	4	4	3	1	11	3	8	34
합계	6	5	4	1	23	7	8	54

조선 중기 가마유적에서는 전기 유적에서 보이지 않았던 술과 똑배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똑배기가 고이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가천동 유적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가천동 가마의 조업연대가 고이리에 비해 늦은 단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항아리와 동이의 기본적인 형태는 조선 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연과 동체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졌으며, 동체 외반도가 큰 항아리가 많이 보인다. 동이는 구경이 30cm에 가까운 것이 많고, 동체 중앙에 대상의 파수가 부착된 것이 많다. 가천동 출토 옹기는 구연의 접은 흔적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¹⁹⁾

¹⁸⁾ 근대의 옹기 제작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성형시 기물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 전기 영남지방의 옹기 제작방법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¹⁹⁾ 옹기의 구연을 접어 성형하는 이유는 구연을 두껍게 하여 소성시 구연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더 큰 기형을 만들기 위해 구연의 두께와 동체 두께도 함께 두꺼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중기에 나타나는 병은 경부가 길고 경부에서 구연이 직선적으로 외반해 나가며 구연단 중앙에 홈이 있는 형태가 보인다. 전기에 완만하게 나팔상으로 외반하던 형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다.

뚝배기는 구경이 저경에 비해 넓으며 구연단은 대부분 둥글거나 편평하며, 대체로 바닥이 편평한 평저이다.

술은 하동 고이리 것은 동체가 양감있게 볼록하고 구연은 점토를 이중으로 길게 말아 접었으며, 동체 중하단에 돌대형 파수가 부착된 형태이다. 가천동에서 출토된 술은 동체가 대체로 직선적으로 내려오고 동체 중상단에 돌대형 파수 또는 점토대가 돌아가고 있다.

뚜껑은 역시 시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형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한 양상을 띠는 편이다. 하동 고이리에서 출토되는 뚜껑의 형태는 구경이 넓고 상면이 편평하다. 이는 기신이 낮은 조선 전기의 것과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뚜껑의 상면은 약간 볼록 솟거나 또는 오목 들어간 형태가 있다. 고이리에서 새로 보이는 뚜껑의 형태는 상면이 편평하지 않고 구연에서부터 중앙으로 갈수록 볼록하게 솟아올라오는 모양이다. 그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상면이 둥글게 볼록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솟아있는 것도 있으며, 상면 중앙에 돌출된 꼭지가 달려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형태의 뚜껑에서는 상면 외면에 일정 두께의 띠상으로 유약이 묻어있거나 또는 상면 외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조개껍질 반침흔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뚜껑의 주용도는 항아리의 덮개이나 소성시에는 가마 내부에서 포개구이를 할 때 공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칠곡 가천동에서는 중앙으로 갈수록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모양의 뚜껑이 대부분이며, 뚜껑 상면 한쪽에 직경 1cm 가량의 구멍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기신이 낮은 동이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동이의 용도보다는 덮개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하동 고이리에서 대각부로 추정되는 편이 출토되었다.

3) 후기(18C 중반~19C)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울산 천전리 유적, 울산 방리 유적과 사천 류천리 유적, 부산 정관 예림리 유적이 있다.²¹⁾

20) 하동 고이리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뚜껑을 陶枕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원판형 도침과 파수형 원판형 도침으로 구분하고 있다. 필자도 기본적으로 시유되지 않은 특징으로 미루어 도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형태적인 특징에서 뚜껑으로 이용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하동 고이리 유적』, 67~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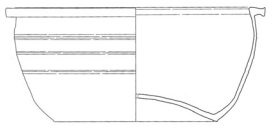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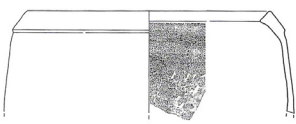
21) 울산 방리 유적(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보고서 작업 중으로 유물을 실견했으나 출토 현황

표 5. 유적별 출토 기종 현황

유적	기종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술	뚝배기	기타	합계
울산 천전리	3	82	14	1	17	4	0	1	121
사천 류천리	4	2	1	1	2	4	0	1	14
부산 정관	13	20	5	3	12	5	8	6	72
합계	20	104	20	5	31	13	8	8	207

울산 천전리 유적에서는 옹기 관련 유구의 수가 많고 그에 따라 유물의 출토량이 많은 편이다. 기종은 동이가 항아리에 비해 수가 많은 편이다. 이전 시기에 비해 구연부의 모양이 특이하며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기종에서 이 4가지 구연 형태가 골고루 관찰되고 있다. 항아리의 구연은 밖으로 돌출된 삼각형 형태가 많으며, 동이의 구연은 밖으로 말아 접어 역7자상을 이루며, 구연단 상면에 홈이 있는 구연, 밖으로 돌출된 삼각형 구연, 역삼각형 구연, 점토를 밖으로 길게 말아 접은 구연 등 다양하다.

표 6. 천전리 옹기의 구연형태 구분

유형	형태	도면
1유형	밖으로 말아 접어 역7자상을 이루며, 구연단 상면에 홈이 있는 형태	
2유형	밖으로 돌출되게 말아 접어 삼각형을 이룬 형태	
3유형	점토를 밖으로 말아 접어 역삼각형을 이룬 형태	
4유형	점토를 이중으로 길게 말아 접었으며 단부는 평탄면을 가지면서 내만하는 형태	

은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보고서가 간행되면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산 정관 유적(동아대학교박물관) 또한 현재 보고서 작업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서가 발간된 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표 7. 조선시대 응기의 기종별 분류

구분	기종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술	떡배기	공반유물(자기류)
	유적명									
전기	청도 순지리									
	하동 백련리									
	사천 우천리									
중기	하동 고이리									
	칠곡 가천동									
후기	울산 천전리									
	울산 방리									
	사천 류천리									
	부산 정관									

축척부동

천전리 출토 항아리는 경부가 없는 형태와 있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경부가 없는 것 중에서 구경이 30cm가 넘는 대형 기종과 점토를 밖으로 길게 말아 접으면서 내만하는 구연이 많이 나타난다. 대형 항아리에 이런 형태의 구연이 보이는 것은 큰 항아리 운반시 구연부를 손으로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체가 내만하는 형태의 동이류 중에 내만하는 동체가 직선적이며 깊이가 깊지 않은 기형을 가진 것이 다수 보인다. 이들은 시유되지 않은 도침 겸용 뚜껑들과 함께 동이 겸 항아리의 덮개 용도로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종이다.

그 외 기종으로 단지류가 소수 있으며, 뚜껑기류도 나타난다. 뚜껑은 상면이 구연에서부터 중앙으로 갈수록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상면 중앙에 꼭지가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뚜껑의 상면 가장자리에는 2~3cm 가량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띠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 테두리 바깥으로는 유약의 흔적이 보이며 상면 한쪽에는 직경 1cm 미만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뚜껑을 소성하기 위해 가마재임할 때 포개구이를 하는데 받침 역할을 함으로써 상하 기물 간 열기 이동을 도와주는 공기구멍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은 울산 방리와 부산 정관에서도 출토되는데 칠곡 가천동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경부에서 약간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에 홈이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다.

술은 구경 23~33cm로 크기가 다양하고 동체가 양감있게 불룩하며 저부도 원저에 가까운 형태로 불룩한 것이 있다. 굽이 있는 저부편이 있어 화로나 시루, 굽동이 등의 기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이류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수류는 횡으로 연결된 띠상의 형태가 대다수이며, 입술모양의 돌대형 파수가 있다.²²⁾ 또한 직선형 또는 S자형으로 길게 돌출되어 단면이 원형 또는 말각방형인 파수가 있는데, 이는 근대의 옹기를 살펴보았을 때 약탕기 등의 기종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착된 상태로 출토된 예가 없어 명확한 기종을 단정짓기는 어렵다.²³⁾ 가로로 부착되는 파수는 넓게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으나 천전리에서는 대상 파수를 상하에서 말아 접어 파수폭이 좁고 두꺼운 것이 보인다.²⁴⁾

울산 방리 출토 옹기의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술 등이 있다.

22) 돌대형 파수는 조선 전기 우천리 유적에서 출토예가 보이기는 하나 드문 편이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많이 제작된 파수형태로 볼 수 있다.

23) 윤숙자, 2002, 『전통부엌과 우리살림』, 떡·부엌살림박물관, 126~127쪽.

24) 가로로 부착된 대상 파수를 상하에서 외면 쪽으로 말아 접은 예는 칠곡 가천동에서도 보이고 있다.

구연단을 밖으로 길게 말아 접은 넓은 구연을 가진 대형 향아리가 많은 편이고, 상면 중앙이 솟아오르고 중앙에 꼭지가 달린 시유되지 않은 뚜껑이 많이 보인다.

사천 류천리 출토 옹기는 울산 천전리와 출토 기종은 비슷하나 각 기종의 구연부 형태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 구연단이 넓고 밖으로 처지는 형태의 향아리가 보인다.

부산 정관 출토 옹기는 현재 조사된 옹기가마 중 가장 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형태의 옹기가 출토되었다. 출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향아리와 동이지만 단지, 병, 뚜껑, 술, 뚜배기 외에도 다양한 기종이 보이고 있다. 비둑알처럼 납작한 형태의 향아리와 깔때기의 기능을 했던 기종²⁵⁾이 있으며, 동이의 받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도 있다.

2. 제작기법

옹기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옹기의 제작기법을 알고 제작기법에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각 유물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옹기의 제작기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옹기의 제작과정 중 성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옹기의 성형기법은 ‘수레질 기법’과 ‘썰질 기법’이 있는데 이러한 제작기법은 토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연원도 토기에 두고 있다.²⁶⁾

수레질 기법은 태림질한 흙가래를 짜리쌓기 하는 방법과 판장형태로 늘려 쌓은 후 접합부위를 연결하고 안을 도개로 받치고 밖에서는 수레로 두드려 형태를 완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도자기의 코일링 기법과 비슷하나 흙가래를 한 단 한 단씩 쌓아 올리는 ‘짜리쌓기’ 방법 후에 도개와 수레라는 도구를 통하여 기벽을 두드려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흙가래 길이는 보통 2.5~3m이다. 이는 대형 기물을 제작

25) ‘조대’ 또는 ‘챗도리’, ‘漏斗’라고도 한다.

26) 토기제작기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원룡, 1981, 『신라토기』 한국의 미술 1, 열화당 ; 최성호·이정호, 1989, 『해남 군곡리 패총 출토 토기의 성격-제작 방법을 중심으로』, 『전남문화재』 1 ; 서재인, 2001, 『안성 화곡리 출토 고려도기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고문화』 57 ; 한혜선,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 방유리, 2001, 『백제토기 제작 기법 연구-이천 설봉산성 출토 품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6 ; 방유리, 2004, 『백제 한성시대 토기 타날 기법에 대한 연구-이천 설봉산성 출토 호·용류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1.

하는데 유리한 방법으로 흙의 조직을 치밀하게 다져서 큰 기물을 빠른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채바퀴 타렴’²⁷⁾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전라도 해안지방에서 주로 행하는 방법으로 너비 5~7cm, 길이는 1.5~2m의 긴 판장으로 그릇벽을 쌓아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러한 기법은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전라도에서만 행해지는 특이한 방법이다.

썰질 기법은 소형 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흙덩이에 구멍을 뚫거나 혹은 흙가래를 두껍게 붙인 후 물가죽이나 손, 도개로 뽑아 올려 성형하는 방법으로 ‘썰질’이란 용어는 기벽을 위로 가지런히 끌어 올리는 모양이 논갈이 할 때 ‘씨래질’과 비슷한데서 유래한 용어이다.²⁸⁾

주로 수레질 기법을 사용하며 작은 기물에는 썰질 기법을 부분적으로 혼용하여 성형하기도 하지만 주 제작방법은 ‘수레질 기법’ 중에서도 ‘따리쌓기’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1) 제작기법

수레질 기법을 중심으로 현대 옹기공방에서 제작하는 방법을 통해 옹기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 (1) 태토를 水飛³⁰⁾한다.
- (2) 수비한 태토를 떡메로 다지거나 발로 밟아 질속의 기포를 제거하고 수분 분포를 고르게 한다.
- (3) 태토를 며칠 동안 묵힌다.
- (4) 거나꾼³¹⁾이 태토를 썰줄³²⁾로 잘라 땅바닥에 내리쳐 가면서(태토가 끈기를 지니도록) 흙가치³³⁾를 만든다. 흙가치는 직경 3~5cm, 길이 1~1.5m 정도

27) ‘채바퀴 타렴’이란 용어 중 ‘채바퀴’란 말은 판장을 물레 위에 올린 모양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채’의 프레임과 같다고 하여 생겨난 단어라고 한다(한정현, 2001, 『옹기 항아리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도예학과 도예전공, 20쪽).

28) 이종창, 1996, 『옹기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썰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산업대학원 상업공예과 도자기공예전공, 11~14쪽.

29)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0, 『한국 옹기와 일본 도자기의 제작기술 비교 연구』.

30) ‘수비’는 녹말을 가라앉히듯 한다. 진흙을 큰 구덩이에 넣고 물을 대면서 자꾸 휘적거리면 위에는 고운 진흙 가루만 남고 모래 등은 밑에 가라앉는다. 이때 구덩이를 2~3개 파서 물을 넘치게 하여 고운 진흙이 떠 있는 물을 다음 구덩이로 가게 하면서 고운 체로 받치면 수비하는 효과는 더욱 크다(정양모·이훈석·정명호, 1991, 『옹기』, 13~14쪽).

31) 옹기점에서 대장을 도와 질을 늘리고 성형된 기물을 덜어내서 말리고 잣물을 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옹기점 안에서는 ‘그네똥꾼’, ‘선일꾼’으로 불리기도 한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42쪽).

32) 흙덩이를 자를 때 사용하는 철사이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7쪽).

- (1),(2),(3),(4)는 거나꾼 작업
 →(5)부터는 대장의 성형작업
- (5) 물레의 부판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백토가루나 황토가루를 뿌리고 손바닥으로 펴준다.
 - (6) 밀몽치를 올린다. 물레는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오른손은 방망이로 밀몽치를 두드려 펴준다.
 - (7) 방망이 끝에 물을 묻혀 두 손으로 방망이를 잡고 인쪽에서 바깥쪽으로 눌러 펴준다.
 - (8) 매끄럽게 만들어진 바닥을 바닥 정금대³⁴⁾로 규격을 정한 뒤 밀가새³⁵⁾로 잘라낸다.
 - (9) 그릇벽을 쌓아올린다(‘태림질한다’). 전라도에서는 ‘태림태린다’. 첫태림작업을 ‘청태림한다’고 한다.³⁶⁾
 - ▶강원도·충청도 : 한 단씩 파리 모양으로 쌓아올리는 방법
 - ▶경상도 : 길다란 흙가치를 나선형으로 쌓아올리는 방법
 - ▶전라도 : 판장질 기법(‘챗바퀴 태림질’이라고 함)
 - (10) 질을 가늘고 길게 늘여 바닥과 접하는 부분을 메워준다(‘고역두른다’, ‘고역돌린다’, ‘굽뒀는다’라고도 함).
 - (11) 태림을 여러 단 쌓아올린다(밀걸).
 - (12) 도개³⁷⁾와 수레³⁸⁾로 수레질한다.
 - (13) 안근개와 바깥근개로 근개질한다.
 - (14) 키정금대(높이정금대)로 높이를 정한 후 목을 목가새로 잘라낸다(‘목가신다’).
 - (15) 입정금대로 크기를 결정한 후 아시잡이(감잡이)로 전을 잡는다.

³³⁾ 흙가래로서 길게 늘어놓은 흙(태림태린 흙)을 경상도 지방에서는 ‘흙가치’라 부른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9쪽).

³⁴⁾ 기물의 크기를 재는 도구로 막대기에 눈금을 그은 것과 흙을 붙여 표시한 것이 있다. ‘높이정금’과 ‘바닥정금’이 있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6쪽).

³⁵⁾ 가새칼, 가싱칼, 가장칼이라고도 부른다. 그릇바닥을 바닥정금대로 쟈 뒤 밑부분을 잘라낼 때 쓰이고, 완성된 그릇을 들어내기 직전 굽 부분을 정리할 때도 사용하며 소나무로 만든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5쪽).

³⁶⁾ 오른손 인지로 흙띠를 늘려가면서 그릇의 벽을 쌓아올리는 것을 ‘타림질한다’, ‘태림질한다’, ‘태림태린다’라고 말한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98쪽).

³⁷⁾ 수레질을 할 때 그릇 안을 받쳐 두드려 펴주는 역할을 하며 소나무로 만들어 쓴다. ‘안끄네’라고도 하며 경상도에서는 ‘조막’이라고 부른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5쪽).

³⁸⁾ 기물의 바깥을 두드려 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소나무로 만들어진다. 기물과 닿는 면은 흙을 내서 흙과 도구가 붙지 않게 해준다. 수레에도 가죽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경상도에서는 ‘부채’라고 부른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5쪽).

- (16) 전을 잡은 후 근개로 다시 정리한 후 다시 전을 잡아준다.
- (17) 문양을 만든다(‘손띠친다’, ‘근개띠친다’³⁹⁾, 강원도에서는 ‘용띠친다’, 경상도에서는 ‘목줄띠놓는다’⁴⁰⁾ 또는 ‘줄놓는다’).
- (18) 문양을 넣은 뒤 마지막으로 전을 다시 잡아준다.
- (19) 밀가새⁴¹⁾로 밀을 깨끗이 도려낸다(‘밀가신다’).
- (20) 들보(큰 기물)나 들채(작은 기물)⁴²⁾로 기물을 건조장으로 옮긴다. 건조장 바닥에는 나무판이나 가마니를 깔아 불순물이 묻지 않도록 한다.
- (21) 어느 정도 건조되면 바닥을 약간 안으로 두드려 밀어 넣은 뒤 좀 더 건조시킨다.⁴³⁾
- (22)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송침에서 건조하는데 한쪽 부분만 건조되어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물을 돌려가면서 건조시킨다.
- (23) 거나꾼이 기물을 잣물통으로 옮긴다.
- (24) 기물을 잣물 속에 한 바퀴 돌려내어 쳃다리에 뒤집어서 걸쳐놓아 여분의 잣물을 흘러내리게 한다. 바닥의 잣물을 손으로 훑어 닦아낸다.
- (25) 송침이나 건조장으로 옮겨 그림 놓는다.
- (26) 잣물 친 기물은 송침이나 양지에서 4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청간(허청간)으로 옮겨 굴(가마)에 서려질 때까지 보관한다.

³⁹⁾ 근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양각 또는 음각이 되도록 선을 넣어주는 것을 말하며 ‘숫굽띠친다’, ‘용띠친다’라고도 한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9쪽).

⁴⁰⁾ 경상도 지방에서만 쓰이는 방법으로 가느다란 흙줄을 인지와 장지 사이에 끼워 물레를 돌리며 눌러 붙이고 줄 사이사이에 물기죽으로 눌러 무늬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줄놓는다’라고도 한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9~40쪽).

⁴¹⁾ ‘가새칼’ 혹은 ‘가싱칼’이라고도 부른다. 목가새보다는 큰 형태로 끝이 날카롭다. 밀판을 일정 크기의 원형으로 잘라낼 때나 성형 후 기물 바닥 주변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김선기, 1997, 『옹기의 제작과정』,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원광대학교박물관, 103쪽).

⁴²⁾ ‘들채’는 완성된 기물을 물레에서 들어내어 밖으로 운반할 때 사용되는 도구로 대나무와 채 바퀴를 잘 다듬어 쓰며, ‘들보’는 큰 기물을 들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로 형질을 엇비슷하게 걸어 두 사람이 잡고 기물을 들어 운반한다(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앞의 책, 36쪽).

⁴³⁾ 이것은 가마구이할 때 밀이 솟아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바닥우긴다’라고 부른다(정양모·이훈석·정명호, 1991, 『옹기』, 대원사, 98쪽).

그림 2. 용기항아리 제작과정





2) 제작기법을 통한 옹기의 특징

위와 같은 옹기 제작기법을 통하여 사천 우천리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성형 흔적, 도개흔, 받침흔, 기벽의 두께 등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옹기 제작을 위해 이용되는 태토는 대부분 사립이 혼입된 치밀질의 점토이다.

옹기의 성형과정이나 정면방법은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과정과 방법을 정확히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옹기의 경우는 특히 조선시대나 근대의 제작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옹기 파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 대략의 제작과정은 추정 가능하다.

사천 우천리 출토 옹기 파편을 통해 성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의 옹기는 기물 하나당 하나의 저부를 따로 만들어 성형하는데⁴⁴⁾ 그에 따른 저부와 동체와의 접합흔 뿐만 아니라 흠가치를 한 단씩 한 단씩 쌓아올리며 성형

⁴⁴⁾ 옹기가 기물 하나당 하나의 밑판을 따로 만들어 성형을 하는 이유는 굽을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굽을 따로 만들지 않을 경우에 그 방법이 제작에 더 용이한 편이다.

하여 동체 내면에 2~3cm 간격으로 흙가치의 접합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내외면은 수레질과 도개질로 정면하여 흙가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성형 시 내면 동체 하단부의 정면이 고르지 못해 점토띠(흙가치)의 접합흔적과 외면 동체 하단부에서 사선 방향의 타날흔(수레질흔)이 관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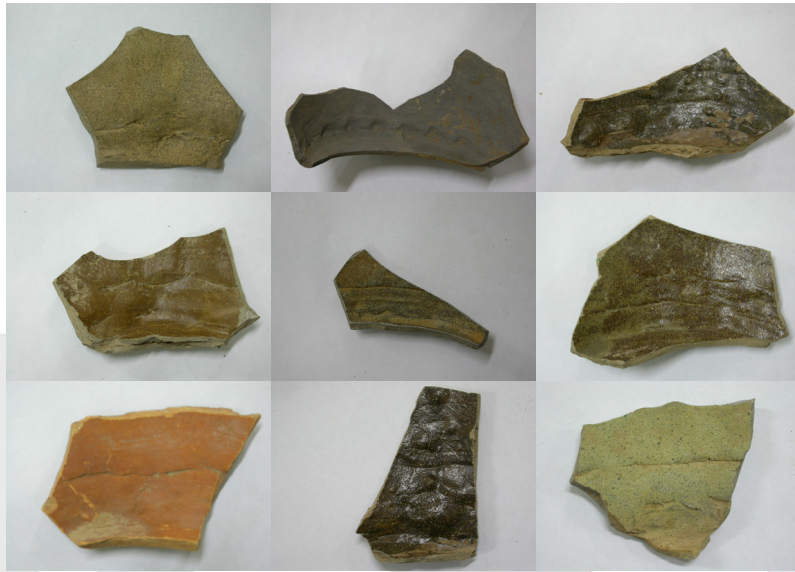


그림 3. 점토띠 접합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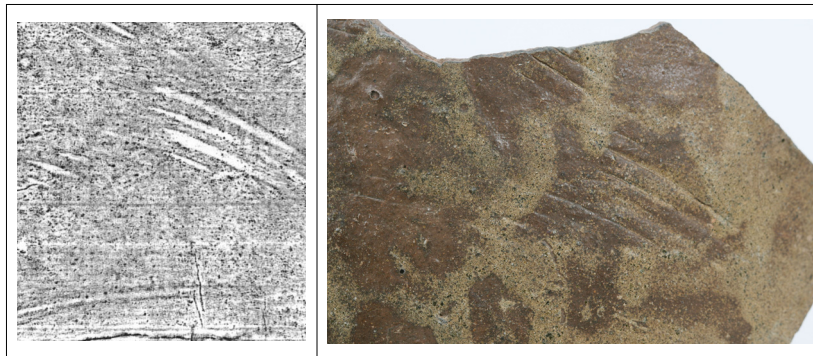


그림 4. 수레질흔

옹기는 그릇벽을 쌓아올린 후 흙의 조직을 다지면서 동체를 늘이는 작업으로 도개와 수레로 내외면을 타날한다. 외면은 수레질 한 후 근개질로 정면 과정을 거치므로 대개의 경우 외면에 타날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⁴⁵⁾ 그러나 내면은 도개질⁴⁶⁾ 후에 정면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옹기 내면에는 대개 동심원상의 도개흔⁴⁷⁾이 남아있다. 동심원상의 도개흔 유형은 사천 우천리 유적에서 보이는 유형이 조선 후기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 후기 이후로 동그라미가 밀집된 모양의 도개흔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동그라미 밀집 무늬의 도개가 이용되고 있다.⁴⁸⁾

우천리 유물에 보이는 도개흔을 통해 동심원상의 원형 도개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45) 사천 우천리 유적 출토유물에 보이는 사선방향 수레질 흔적은 우천리에서만 보이는 것이며, 다른 유적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수레질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46) 도개질(타날)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태토 속에 들어있는 기포를 제거함으로써 소성 시 기포에 의한 기면의 터짐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날함으로써 태토의 결합력을 공고하게 하여 고온에서도 형태의 일그러짐 없이 그대로 소성하기 위한 것이다(방유리, 2001, 앞의 논문, 13쪽).


47) 도개에 무늬를 새긴 1차적인 이유는 기벽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도개가 기벽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이며, 점차적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도개의 무늬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옹기 내면에 남아있는 동심원상의 도개흔은 고려시대 도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김해패총, 해남 군곡리 패총 등에서도 토제 내박자(‘받침모루’라고도 함)가 수습된 적이 있다(최성호·이정호, 1989, 앞의 논문).

조선시대 옹기의 대부분은 직경 3~5cm 내외의 동심원상의 무늬가 내면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울산 천전리 출토 옹기에서는 동그라미가 밀집된 모양의 도개흔이 보이기 시작한다.

48) 현대에는 옹기 제작 시 내외면에 촘촘하게 생기는 도개질과 수레질의 흔적을 내외면 근개(안근개, 바깥근개)를 이용하여 타날 흔적을 모두 없애는 정면 작업을 한다. 19세기까지만 하여도 옹기 내면의 도개 흔적을 멋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여 일부러 남기기도 하였으나 요즘에는 옹기 내면에 불순물이 끼는 불편함 등 위생상 문제 때문에도 정면하여 도개흔을 완전히 없애면서 성형한다.

표 8. 사천 우천리 출토 유물의 도개흔 유형

유형	도개형태	예 1	예 2
I	동심원의 중첩 간격이 촘촘하고 굽기가 가는 형태		
II	동심원의 중첩 간격과 굽기가 보통 정도인 형태		
III	동심원의 중첩 간격이 넓고 굽기가 굵은 형태		

도개의 동심원의 간격과 굽기에 따른 형태의 차이는 도개의 오랜 사용으로 도개의 목질이 마연되면서 나이트가 굽어지고 동심원간의 간격도 넓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목재의 재질에 의해 형태나 굽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제작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구연과 구연 또는 구연과 저부편이 함께 붙어있는 옹기편, 그리고 조개껍질 받침 흔적이 가득 남아있는 구연단과 저부편에서 옹기 소성시 재임방법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⁴⁹⁾

⁴⁹⁾ 조개껍질 받침흔은 18세기 이후(칠곡 가천동 단계)에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18세기 이후로는 굵은 모래를 사용하거나 시유하지 않은 뚜껑을 포개구이 하는 기물 사이에 넣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에는 옹기 소성 시 포개어 쌓기 위해 굵은 모래를 풀로 발라 포개구이 하기도 하고, 각 옹기의 구연단과 외저면을 사포 등으로 문질러 유약을 모두 닦아내어 소성 중에 기물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경우 기물이 서로 붙을 우려가 없이 깨끗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기물 사이에 별도의 받침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림 5. 저부에 보이는 조개껍질 받침흔



그림 6. 구연단에 보이는 조개껍질 받침흔



그림 7. 구연과 구연을 맞대어 포개구운 흔적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영남지방 옹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종은 유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향아리 또는 동이의 출토량이 가장 많은 편인데, 이는 저장·운반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기종으로 생각된다. 조선 중기와 후기가 되면 술이나 떡배기 등의 새로운 기종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장·운반용으로만 활용되던 것이 점차 조리용이나 식기 등으로 용도가 조금씩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용품으로까지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옹기를 전·중·후기로 나누어 시기별 특징을 검토해보면, 먼저 조선 전기(15C~16C)의 옹기는 유색이 대체로 녹갈색이며 태토는 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로써 회갈색 또는 적갈색을 띤다. 기형에 비해 기벽이 얇은 편이다. 기종으로는 동이, 호, 단지, 병, 뚜껑 등이 있고 모두 평저이다. 향아리와 동이의 구연 형태는 'T'자형을 이루는 것이 많으며 역ㄱ자 형태가 드물게 보인다. 단지는 향아리와 유사하나 소형 기종으로 둥근 구연단이 도톰하게 외반하거나 각이 완만한 역삼각형 형태가 주로 보이고 있다. 병은 구연이 대체로 나팔상으로 외반하는 형태이나 경부 상단이 반구병의 형태를 이루는 것과 구연단이 둥글게 마무리되는 형태, 구연이 나팔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이 편평하거나 가운데에 홈이 있는 형태가 있다. 뚜껑은 청도 순지리 유적에서만 다량 출토되고 있는데, 구경이 넓고 상면이 편평하며 기신이 낮은 형태로 모두 시유가 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진다. 포개구이용 받침으로는 주로 조개받침을 사용하였으며 내면에 동심원상의 도개흔이 관찰된다.

조선 중기(17C~18C 중반)의 옹기는 전기보다 태토의 입자가 거칠고 굵은 석립의 함량이 높다.⁵⁰⁾ 유색 또한 전기에 비해 어두운 암갈색 또는 적갈색 계통이며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었다. 그리고 기벽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져 투박한

⁵⁰⁾ 태토의 선택은 성형에 있어 가장 최초의 단계이다. 태토는 입자가 작고 불순물이 없을수록 가소성이 크다. 그러나 입자가 너무 곱거나 태토 속에 수분이 많으면 끈적거리고 연해서 그릇을 빚어 올리기 어렵다. 이러한 태토를 사용하여 소성할 경우 바깥쪽의 수분은 건조속도가 빠른 반면, 안쪽은 수분이 고운 태토의 입자가 밖으로 스며 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기벽의 수축률이 고르지 못해 균열이 생기게 된다(방유리, 2004, 앞의 논문, 8쪽).

조선 중기 이후의 옹기가 전기에 비해 태토가 거칠고 석립의 함량이 높은 것은 수분 증발을 빠르게 하여 수축률을 균일하게 하며, 소성 시 발생하는 균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느낌을 준다. 기종은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이외에 뚜배기와 술이 나타난다. 구연은 전기보다 두께가 더 두꺼우며 말아 접은 구연이 사다리꼴을 이루거나 술에서는 구연을 길게 이중으로 말아 붙여 내만하는 새로운 형태가 보인다. 외면에서 돌대에 압인하는 등의 문양이 나타나기도 하며 받침은 하동 고이리 단계까지는 주로 조개껍질을 이용하였으나 칠곡 가천동에서는 조개껍질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주로 굽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천동 요지에서 술을 비롯하여 뚜배기 기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는 옹기가 저장·운반용의 중·대형 기종뿐만 아니라 조리용 또는 식기류의 소형 기종도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18C 중반~19C)의 옹기는 전기 및 중기에 비해 태토 입자가 더욱 거칠고 굽은 사립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 유약은 두께가 두꺼워지고 고르게 시유된 편이다. 구연의 형태도 다양해져서 역기자 형태뿐만 아니라 항아리에서는 밖으로 말아 접은 구연단이 바깥으로 처지면서 넓게 형성된 것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로 시유되지 않은 뚜껑이 많이 보이는데 칠곡 가천동 출토유물과 후기의 뚜껑 상면에 직경 1cm 미만의 구멍이 뚫려있는 특징이 있다. 기종은 중기에 비해 술과 뚜배기 등의 식기류를 비롯한 일상생활용품이 다양하게 제작되기 시작하여 19C에는 옹기가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옹기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이나 도예전공자들에 의해 일부 이루어졌으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옹기가마에서 출토된 자료만으로 대략적인 변천과정과 제작기법과 관련된 특징을 검토해 보았으나 위의 양상이 절대적인 시기적인 차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영남지방 내에서도 지방마다 지역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옹기가마 유적은 공교롭게도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9개 유적과 전라도에서 조사된 나주 우산리 유적, 무안 피서리 유적, 해남 백야리 유적으로 모두 12개의 유적뿐이다. 근대의 옹기를 살펴보았을 때 옹기는 지방마다 강한 지역색을 띠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보고서가 간행된 옹기가마 유적이 아직은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옹기는 중앙관청에 匠工人으로 등록된 甕匠이 104명에 이른다는 『經國大典』의 기록⁵¹⁾을 통해 조선 초 중앙에서도 옹기의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탓에 중앙과 지방의 옹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옹기의 공급에 있어 어떠한 제도나 체계가 있었

51) 윤국일 옮김, 1998,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는지에 관해서는 문헌기록도 고고학적 자료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각 유적의 시기설정은 공반 출토되는 자기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 것이며, 앞으로 고고학 자료가 더욱 증가되면 옹기 가마에 관한 연구나 자기와 옹기의 수요·공급에 대한 사회적 배경의 검토와 지역색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옹기의 시기적 변화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홍익대학교도예연구소, 1990, 『한국 옹기와 일본 도자기의 제작기술 비교연구』
김영원, 2003,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도동렬 編著, 1994, 『한국의 도자문화』, 『한국기술문화사』, 황령출판사
최 주 譯(송응성 著), 1997, 『製陶』, 『천공개물』 중권, 전통문화사
송재선, 2003, 『우리나라 도자기와 가마터』, 동문선
송재선, 2004, 『우리나라 옹기』, 동문선
심우정 兪김(아사카와 다쿠미 지음), 1996,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유홍준·윤용이, 2001, 『알기쉬운 한국 도자사』, 학고재
윤국일 兪김, 1998,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윤숙자, 『전통부엌과 우리살림』, 2002, 떡·부엌살림박물관
윤숙자·박록담, 1997, 『우리의 부엌살림』, 삶과 꿈
윤용이, 1996,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윤용이, 1993, 『한국 도자사 연구』, 문예출판사
정동찬·유창영·홍현선·윤용현·신영순, 1994, 『전통과학기술 조사연구(II)』
-대장간, 옹기, 기와』, 국립중앙과학관
정병락, 1998, 『옹기와의 대화』, 옹기민속박물관
정양모, 1990, 『한국 도자기』, 문예출판사
정양모·정명호, 1991, 『옹기』, 대원사

<도록>

- 광주시립박물관, 1992, 『옹기특별전』, 개관5주년기념
단국대학교박물관, 2002, 『질그릇의 美』,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 『옹기전』
 원광대학교박물관, 1997,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제10회 특별전시기획도록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0,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제30회 이화
 여자대학교박물관특별전

<논문>

- 강봉원, 2000, 『토기 구연부편을 이용한 구경 측정에 관한 연구』, 『학산 김정학
 박사 송수기념논총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권병탁, 1984, 『수공업-특히 도자 수공업 경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수공업』,
 한국사론11, 국사편찬위원회
 금계현, 2001, 『타렴 성형한 옹기의 형태에 관한 연구-관장질 타렴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김동윤, 1992, 『옹기 '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도예학과 석사학위논
 문
 김진우, 1972, 『한국옹기공방의 실태 연구-제작기법, 용어를 중심으로』, 홍익대
 학교대학원 공예도안과 도자기전공
 김충수, 1997, 『한국 항아리의 지역별 조형 형태분석』, 한양대학교대학원 응용미
 술학과 박사학위논문
 방유리, 2004, 『백제 한성시대 토기 타날 기법에 대한 연구-이천 설성산성 출토
 호·옹류를 중심으로』, 『문화사학』21
 방유리, 2001, 『백제토기 제작 기법 연구-이천 설봉산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문
 화사학』16, (2001)
 本田 まび, 2003, 『임진왜란 전후의 한일 도자 비교연구-일본 구주 비전도자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민하, 1985, 『灰釉에 관한 연구-소나무·밤나무·억새물재를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미술학과 요업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논문
 선종만, 2000, 『전통도자 용어에 관한 연구-원료, 도구, 성형, 소성을 중심으로』,
 삼척산업대학교 논문집33
 안정숙, 1987, 『옹기에 관한 연구-토기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
 원 응용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제일, 1992, 『한국 도자기 명칭에 관한 고찰-기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
 학원 도예학과 도예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종창, 1996, 『옹기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썰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산업대학원 상업공예과 도자기공예전공
- 정명호, 1996, 『옹기장과 제조기술에 대한 고찰(上·下)』, 『실학사상연구』7·8, 모악실학회
- 정명호, 1997, 『한국 옹기의 지역적 특성과 그릇 명칭에 관한 조사연구』, 『실학사상연구』, 모악실학회
- 정명호, 1973, 『한국 옹기점의 제작과정에 대하여(上)』, 『고고미술』119, 한국미술사학회
- 정명호, 1973, 『한국 옹기점의 제작과정에 대하여(下)』, 『고고미술』120, 한국미술사학회
- 정병락, 1993, 『한국 옹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기타>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4,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2차)개요』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2,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도요지 시굴조사 결과약보고』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1,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 내 3차 발굴조사-2차 현장설명회자료-』

Abstract

A Study of Pottery in the Youngnam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 Especially Characters of Manufacturing Techniques

Bae, Bo-ni

Pottery is a food container that used to be seen everywhere in Korea; it has been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eramic wares down to modern times. However, academic attention of it is minimal and there are almost no archeologist in this field.

Recent examples of excavating private ceramic kilns aim to examine how it has been chang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ough its relevant resources are insufficient and there is something yet to learn.

Nine heritages of its pottery kiln are in the Youngnam area excluding two of them whose academic reports have not been published yet. Rest of heritages have been studied in order to examine their types and production techniques.

Pottery of the early Joseon era (15C~16C) is normally blue-green and made of refined clay colors grey brown or red brown. It is relatively thin; jars, bowls, pots, jugs, bottles, vases, covers and etc. and all of them are flat. Jars and jugs often have T-shape mouth, and L-shapes are sometimes found. Pots are similar to Jars but smaller. Only some covers were excavated from Sunji-ri heritage; these are wide and flat-topped, and all glazed.

Pottery of the middle Joseon era (17C~mid-18C) is made of rougher and thicker clay; It is darker brown compared to the earlier period, and glazed thicker. They are thicker, and rolled mouth form trapezium. Sometimes patterns are found on the pottery; its saucers used to be shells until the stage of Ha-dong Goi-ri heritage, but the Chilgok Gacheon-dong

heritage does not show any shell marks - it is presumed that thick sand was used instead. Furthermore, earthenware bowl were produced at this heritage, which tells us that small culinary and cutlery types also began to be produced.

Pottery of the late Joseon era(mid-18c~19c) is made of even thicker and rougher clay. The shape of mouth becomes more diverse. In terms of pottery types, compared to the late-Joseon period, domestic and cutlery pottery began to be produced in diversity.

Each heritage has been dated according to excavated types but research on pottery kilns, social background about demand and supply of pottery and its all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re-examined when archeological sources increase in the future.

